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1호 【무제 제26025호】 주제 107 (2018)년 5월 31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국의 바다우에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솟아난 기념비적창조물 고암 - 답촌 철길 개통식 진행

【평양 5월 30일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인 총공세의 불길이 거세차게 떠오르는 속에 동해지구 석전만의 바다우에 횡단하는 철길이 건설되어 개통되었다.

웅장하고 특색있게 뻗어나간 고암-답촌철길은 나라의 수산업발전을 인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생활을 인제 주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인아은 고귀한 결실이다.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간직한 건설자들은 자력생성의 기치밑에 건인불발의 영웅적 투쟁을 벌여 고암과 송전만을 연결하는 해상철길을 짧은 기간에 완공함으로써 우리 나라 철길건설의 새 경지를 개척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조국의 동해기슭에 장대한 선경으로 펼쳐진 고암-답촌 철길의 완공은 자력생성의 든든한 토대우에서 끊임없이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막강한 힘의 과시로 되며 이것은 당의 새로운 전략적토선을 완철하기 위한 경제건설대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완공된 고암-답촌철길 개통식이 30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동지, 룡해운상 강종관동지, 강원도당위원회 위원장 박정남동지, 강원도인민위원회 위원장 한상춘동지, 철도성 정치국장 김영규동지, 관계부문 일군들과 건설자들, 현직시인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통사를 박봉주동지가 하였다.



박봉주동지는 온 나라가 공화국창건 일흔년을 맞는다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으로 세차게 끓어오르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고암-답촌철길 개통식을 진행하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동해지구에 우리 식의 해상철길다리가 건설됨으로써 나라의 철도운수부문과 수산업발전을 앞당기는데 있어 돌출된 기술적도태가 더욱 현존하지고 인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여행조건을 보장해줄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수산업발전에 유리한 고암지구와 답촌지구, 현아포일대에 대규모적인 어촌지구를 일떠세우실 웅대한 구상을 펼쳐시고 그 선행공정인 고암-답촌철길을 현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나라의 전민사업을 명도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철길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설계형성안도 지도해주시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시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단계목표를 설정하고 공세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박봉주동지는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 중정의 마음을 안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해상철길건설에 펼쳐나신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결사전을 벌린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높이게 되었다고 대단족을 표시하시고 어려운 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해제한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일군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며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는 최상의 영광을 안겨주시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배려해주신 이 사랑과 믿음에는 건설자들과 일군들이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거창한 창조대전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영웅조선의 기상을 더 높이 펼쳐나가기로 바라는 크나큰 기대가 담겨있다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어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이라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한사람같이 뻗어나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과학기술에 당정책관철의 기본열쇠가 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지닌 과학자, 기술자들이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수많은 새기술혁신인들을 창안도입하여 로력과 자금,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말하였다.

룡해운상, 철도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현관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공사를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완공된 고암-답촌철길을 현지에서 료해하시면서 불수후 호뜻하고 자랑스럽다고, 조국의 동해기슭에 또 하나의 선경, 바다의 궤도가

하여 말하였다. 자강력제일주의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생명선으로 변함없이 틀어쥐고 경제건설대진군을 파격히 전개하여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집행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박봉주동지는 당의 무변에 더욱 굳게 뚫쳐 지역경제의 혁명발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일떠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철도성 부상 장순성동지, 룡해운상 향만수상운수관리국 부국장 최상철동지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완공된 철길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크나큰 기쁨과 만족을 드린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고 당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조국건설에서의 실천적성과로 보답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그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심과 결사관철의 정신을 안고 고암-답촌철길을 훌륭히 완공한 그 기세, 그 기력으로 계속혁신, 계속발전, 번속공격하여 대고조의 전구마다에서 끊임없는 기적을 창조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철도역과 시설물들에 대한 정상관리사업을 잘하며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한 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의 위력, 우리의 속도, 우리의 기상이 나래치는 만리마시대를 중추의 기적소리로 빛내여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개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개통식이 끝난 다음 조국의 바다에 애국의 땀을 바쳐 자랑찬 창조물을 일떠세운 기쁨과 공지에 넘친 건설자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을 태운 열차가 개통의 첫 기적소리를 울리며 고암과 답촌사이를 운행하였다.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총진군대오에 미덕의 향기 차넘친다

동지적 사랑 속에 빛나는 위훈

2. 8 비날론련합기업소 원료직장에서

사회주의 내 조국밖에서는 그 어느 일리와 마음에 가보아도 동지들사이에서, 이웃들사이에서 서로 돕고 진심으로 위해주는 그윽한 미덕의 향기가 차넘치고 있다.

엄마에게 우리가 찾았던 2. 8 비날론련합기업소 원료직장에 두 부모님은 종업원을 위해 전철육의 정을 기울이고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면서 진정을 바치는 고상한 미풍이 활짝 꽃피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은 나래에 서로 곁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어느날 저녁 작업반장 장순성동무의 집으로 직장 일꾼들이 정성일, 현영선동무가 찾아왔다. 30여년을 한직장에서 일하고있는 현신자이라고 놀림삼아 부르면서 그의 사생활에 깊이 마음쓰는 일꾼들이었다. 그날도 일꾼들은 알고있는 그의 건강이 걱정되어 찾아왔던 것이다.

집사람들이 자라온 일꾼들은 방안의 온도도 가늠해보고 그의 건강상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며 많은 일을 하여 뜻깊은 울레를 빛나게 장식하자

고, 그리하면 첫째도 둘째도 건강을 잘 돌보아 한다고 절절히 말했다.

마디마디 사랑과 정이 넘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장순성동무는 뜨거운웃음을 흘렸다.

직장의 크고작은 일들을 도맡아 하고 돌보는 바쁜 속에서도 식솔같은 집안의 민형, 만누어진 심정으로 종업원들의 생활을 일일이 헤아려 보살펴주는 그들이었다.

일꾼들의 사심없는 정정에 감동을 금치 못하는 장순성동무에게는 부모없는 직장의 한 종업원을 위해 그들이 기울여온 헌신과 사랑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졌다.

수리작업반에는 리우철이라는 동을 금치 못하는 장순성동무에게는 부모없는 직장의 한 종업원을 위해 그들이 기울여온 헌신과 사랑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졌다.

그의 아버지는 기업소에서 오래동안 일한 기능공이었다. 누가 보았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와 같이 수리공구들을 들고 고대들의 통을 움직여주는 그의 아버지는 정직한 로동자의 한사람이었다.

한생 오직 일밖에 몰랐던 아버지는 그가 군사부름을 할 때 세뉘었다.

제대된 리우철동무가 직장에 배치받았을 때였다. 그의 가정에 대하여 세세히 물어보는 과정에서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지금은 누이동생과 함께 살고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일꾼들은 그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듯이 돌봐주어야 할 무거운 임무가

거주하는 모습을 보며 신문부부의 부모들은 자기들을 대신해주는 공장일꾼들과 종업원들의 뜨거운 열의를 깊이 고마와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고맙다고 거듭거듭 인사

고 당부하는 일꾼들을 보는 리우철동무의 눈금은 축축히 젖어 있었다.

그날 함흥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을 찾아 정중히 인사를 드린 심방신부는 뜨거운 격정속에 심장의 북소리를 아뢰었다.

(저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 충성다하였던 권세대들의 고귀한 정신을 그대로 이어 정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겠습니다.)

일꾼들은 그후에도 리우철동무가 언제나 그 명세를 지게가도록 잘 이끌어주었다. ... 종업원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대 보살피는 일꾼들의 모습은 대중에 제 마음을 기울이고 직장 안에서 서로 돕고 위해주는 미풍이 활짝 꽃피게 하였다.

수리작업반원들은 우리는 한 집안, 한식솔이라고 하면서 생일날이나 명절날이면 리우철동무의 집에 찾아가 축하해주는 것은 물론 어느날에도 자주 불러 살림살이현전도 알아보고 애로 사항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장기적업반은 온전공 김금철동무는 심하게 앓을 때 자기들 위해 지성을 다한 작업반원들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있다.

구미에 갖는 음식들을 가지고 자주 찾아와 현신의 새 소식을 알려주고 치료에서는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병을 떨고 일어나 우리

직장 종업원인 새비느라자함을 펼쳐놓았다.

《어머니, 입밖에 모르는 우리 명희동무는 직장의 보배, 공장

한창 서두르고있을 때였다. 선동대원들의 경제선동준비를 하나하나 보아주던 김금철동무가 복통을 안고 잠깐잠이 든 환은은 녀인앞에 이르렀다.

인기척을 느끼고 얼굴을 붉히며 어쩔지 몰라서는 그를 자리에 앉혀 김금철동무는 말했다.

《힘들기야. 방금 시집은 새아가야 며칠이지. 내 그런 우리 셋째를 통해 얻고 너병애술선동대활동을 벌인대 고난의 행군에 이따금 잘 할가.》

《우려 녀성들속에서 당과 혁명,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미풍이 더욱 아름답게 꽃피고 나고있습니다.》

《나 나라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부끄러움 없이 이번 직장 2. 8 비날론련합기업소의 보람찬 하루는 대안구적인의 너병애술선동대원들의 출근길행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새처럼 걸어야 하는 젊은 기쁨, 중추기에서 울려나오는 힘있는 노래소리... 자기들보다 더 나은 로동계급과 한민족에 선전투원이라는 자질을 안고 이룬이름이 떨쳐나오기 시작하는데 60나이를 가까이 가고있는 한 녀성도 있었고,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여올랐다. 동인이 지나 대장은 다시 말을 이었다.

《그후 그는 팔레 우리결을 떠나고말았어요. 오늘도 그의 모습을 잊을수가 없어요.》

대장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녀성들 모두가 소리없는 눈물을 삼키고있었던것이다. 새로운 결의를 마음속으로 가다듬으며, 대안명의 녀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남편들과 자식들이 대인의 로동계급이라는것을 가장 큰 긍지로, 자랑으로 여기는 녀성들, 자기들도 발전설비생산에 이바지한다는 이 한가지 생각으로 대안로동계급을 위해 바치는 이들의 진정성과 그 무엇보다도 더해야 할수 있던 말인가.

20여년간을 초급일꾼으로 일해온 대정동 초급녀병원위원회 부위원장 장순성동무가 자기 아이들의 결혼식준비를 하면서 두었던 물자로 대인의 로동계급을 지원한것도, 두레전 총정의 200일전투로 시작되자 나이 가 한스덜다며 정성껏 키우던 정성승을 선동 대안구적계급으로 지원한 김순호할머니도 바로 이런 열망을 안고 사는데 대한 소박한 녀인들이었다.

난치의 병을 앓고있는 한 녀성들을 전철육의 심정으로 돌봐주어 그 병을 떨고 일어나도록 해준 대정동의 청년순동무에 대한 이야기도, 초급단체를 대안의 로동계급을 위하는 한마음으로 굳게 묶어세웠다는 한 녀성도 초급일꾼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무시할 불을수 없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시대 녀성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한가정의 행복보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들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이었다.

유 광 진

지난 3월 어느날 김정숙명장방직공장 일꾼들이 한사리에 모여있었다. 그들모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었다.

《우리 명희동무가 드디어 가정을 이룬다 말이지. 정말 기쁜 일이지.》

그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바지 빨라시의 일생 대사를 앞둔 아버지, 어머니처럼 기쁨을 금치 못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회적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서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데가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한명희동무는 몇해째 해마다 5년분이상인 인민경제계획수행해오는 공장의 소년년 혁신자이다. 전방총합직장 4직공장 직공공인 그가 남다른 로력적성파를 이룩한 때마다 공장일꾼들은 입밖에 모르는 그의 성품이 북새 대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처녀시절이 다 지나가는데 딸의 한생의 길동무를 걱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은근히 속이 달랐다.

그러면 직공들이 자기와 똑같은 로력혁신자, 공장의 영예시간에 사선이 금치하게 나붙은 전기직장 방직작업반 전공인 세대공인 라관호동무와 일생을 약속한것이였다.

《그날도 일꾼들은 알고있는 그의 건강이 걱정되어 찾아왔던 것이다.

집사람들이 자라온 일꾼들은 방안의 온도도 가늠해보고 그의 건강상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며 많은 일을 하여 뜻깊은 울레를 빛나게 장식하자

거주하는 모습을 보며 신문부부의 부모들은 자기들을 대신해주는 공장일꾼들과 종업원들의 뜨거운 열의를 깊이 고마와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고맙다고 거듭거듭 인사

직장 종업원인 새비느라자함을 펼쳐놓았다.

《어머니, 입밖에 모르는 우리 명희동무는 직장의 보배, 공장

이 모든 희곡을 영연도록 지워지지 않게 심정속에 고이 담은 한명희동무의 두볼로 뜨거울 것이 흘러내렸다.

(이런 고마운 사람들, 이처럼 따뜻한 어머니들을 위하여 내 정령 아꼈었어 그 무엇이야.)

본사기자 허 명 숙

혁신자의 결혼식

김정숙명장방직공장에서

하는 한명희동무의 부모에게 공장일꾼들은 말했다. 우리 공장의 소년년 혁신자들인데 자기들이 부모부실을 하는것은 너무도 용감한 일이라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방총합직장 4직공장 직공공인 라관호동무와 라관호동무의 어머니에게 자기

이 모든 희곡을 영연도록 지워지지 않게 심정속에 고이 담은 한명희동무의 두볼로 뜨거울 것이 흘러내렸다.

(이런 고마운 사람들, 이처럼 따뜻한 어머니들을 위하여 내 정령 아꼈었어 그 무엇이야.)

본사기자 허 명 숙



한 식 슬 이 되 여

룡천군 자동차사업소 지배인 김철남동무와 그의 가정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나 애로도 없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룡천군 용에 사는 영예군인 안병진동무가 보내온 편지에 담겨진 이야기는 온 나라가 회복한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 땅에서 누구나 들을수 있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평범한 영예군인을 위해 바쳐진 그 정정에는 남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신천군 호암리당원위원회에서

신천군의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닌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당원위원회에서는 우선 모든 선동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계급의식수양에 대한 특보사업을 이같이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신철학박관과 피계급교양실점원들 자주 조직하여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적에 대한 환상은 끝죽으며 계급적현우와는 끝까지 맞서싸워야 한다는 투철한 계급의식을 깊이 새겨주고 있다.

이곳 농정원들은 사회주의주의의 제 1세대 제 1선함호를 지어준 공기를 안고 공화국상전 일꾼들이 되는 뜻깊은 울레에 필요한 기술을 안아주기 위한 당원형 영농전투에 한사같이 떨쳐나 위훈을 창조하고 있다.

로동농민원 박 영 회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체험자들은 절규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계급적원수들의 본성을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작위와 알박을 받아보지 못하고 전쟁의 엄혹한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이 우리 혁

금천군 읍 42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엄영분할머니에게는 두 고두고 있을수 없는 피절은 현 한이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격렬적인 일사격후퇴시기 7살 난 그는 어머니를 따라 어린 동생과 함께 북방길에 올랐다. 일생과 함께 길을 계속하던 아버지는 가증스런 현우놈들에게 벌의 에 제되었다.

그를 회상하는 엄영분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현우들은 아버지가 데를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온 목적을 데라고 하면서 사정없이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대로의 인술자라는것을 알아본 눈물은 항상으로 아버지의 온몸을 마구 찧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현우놈들은 반주같이 된 아버지

눈을 뜨지 않았습다. 동생이 죽은줄도 모르고 아버지를 목 놓아부르며 피로 물든 눈물을 해대던 그때 어린 내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것은 현우들은 송남이 무리들이라는것이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아직도 근 70년전 그날의 용장자라기 역력히 남아있다. 그는 한생을 단듯하게 웃 한번 입이부지 못했다. 그 웃조차 변하지 돌아보지 못했다. 아이의 무리들이 가한 악행은 그를 영영 불구자로 만들었던것이다.

오늘도 그의 집으로는 벽사의 증언처럼 할머니의 이야기가 들으려고 한 세대 부수자들이 찾아오곤 한다.

군기통애술선동대원인 그의 아버지는 말했다.

《나의 어머니의 증오와 분노는 그대로 나의 노래가 되고 시가 되어 공장에서, 협동원에서 더 높이 울려져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안에는 해산을 앞두고있었다. 현우들은 남편이 없는 앞에서 시벌처럼 말곤의 포행이로 그의 안개의 온몸을 지저했다.

하지만 굳게 닫은 로동당원의 입을 열수 없었다. 미국놈들은 끝끝내 그를 투항히 싹해하였다.

그날의 모진 고통은 어쩔고 그의 안에는 한생 씩상에 때인 몸으로 살게 되었다. ... 울명하던 남정명숙녀성의 시어머니는 이런 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현우를 갖지 못하고 가지니 눈이 감겨지지 않는다. 아이들을 잘 키우시어 현우를 천백배로 길어다오.》

후날 정명숙녀성의 아들들은 모두 조국보위초소와 있고 또 그회를 이어 초사, 손녀들도 군복을 입었다. 정명숙녀성은 자손들에게 늘 이렇게 당부하곤 한다.

《남고기를 먹는 송남이가 풀을 먹고서는 살수 없는것처럼 계급적원수들의 본성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명심하게 하라. 송네는 우리 가정의 영원한 계주봉이다.》

본사기자 조 향 선

한 계급의식을 깊이 새겨주고 있다.

이곳 농정원들은 사회주의주의의 제 1세대 제 1선함호를 지어준 공기를 안고 공화국상전 일꾼들이 되는 뜻깊은 울레에 필요한 기술을 안아주기 위한 당원형 영농전투에 한사같이 떨쳐나 위훈을 창조하고 있다.

로동농민원 박 영 회

필필한 한 환상도 가지지 말라

보통강구역 서정봉에 사는 정명숙녀성은 이제 20살인민군공인이었다. 그의 가정에는 6개의 조선인민군입대증이 있다. 세 아들과 세 손자, 손녀들

을 끝까지 키워 조국보위의 길에 내세운 그의 가슴속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간직되어있는 것인가.

배양진 그는 머슴군의 딸로

이 모든 희곡을 영연도록 지워지지 않게 심정속에 고이 담은 한명희동무의 두볼로 뜨거울 것이 흘러내렸다.

(이런 고마운 사람들, 이처럼 따뜻한 어머니들을 위하여 내 정령 아꼈었어 그 무엇이야.)

본사기자 허 명 숙

당시 그의 안에는 해산을 앞두고있었다. 현우들은 남편이 없는 앞에서 시벌처럼 말곤의 포행이로 그의 안개의 온몸을 지저했다.

하지만 굳게 닫은 로동당원의 입을 열수 없었다. 미국놈들은 끝끝내 그를 투항히 싹해하였다.

그날의 모진 고통은 어쩔고 그의 안에는 한생 씩상에 때인 몸으로 살게 되었다. ... 울명하던 남정명숙녀성의 시어머니는 이런 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현우를 갖지 못하고 가지니 눈이 감겨지지 않는다. 아이들을 잘 키우시어 현우를 천백배로 길어다오.》

후날 정명숙녀성의 아들들은 모두 조국보위초소와 있고 또 그회를 이어 초사, 손녀들도 군복을 입었다. 정명숙녀성은 자손들에게 늘 이렇게 당부하곤 한다.

《남고기를 먹는 송남이가 풀을 먹고서는 살수 없는것처럼 계급적원수들의 본성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명심하게 하라. 송네는 우리 가정의 영원한 계주봉이다.》

본사기자 조 향 선

이동강의를 통하여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 일제침략자들에게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고있다.

—경성군계급교양반에서—

본사기자 김 진 명 역음



